

21C에 요구되는 리더쉽

1991년 2월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미국자동차 공학회에서 General Motors社의 전략기획이사, Michael E. Naylor가 행한 연설문을 번역 게재하였다.

1. 머리말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21C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어떤 발명품들이 등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들의 감정이 충격을 받고,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 깨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우리의 앞날은 불투명한 것만 같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후회와 희망의 긴연속을 나타내는 인생여로와 같다고 여긴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속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다양한 기술분야에서는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매일 해일처럼 밀려드는 자료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협력을 어떻게 도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가? 즉, 세계의 시장분배, 변화하는 노동력, 끝없는 규제조치, 모든분야에서의 새로운 상황은 고조되는 경쟁(Competition), 심각해지는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급격한 변화(Change)의 3가지 "C"로 집약되어 질수 있다. 우리는 나태하게 기다리다 다음 희생물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에 도전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기로에 서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기술, 심각한복잡성, 요란스런 경제, 맹렬한 경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이 좋아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좋았던 옛날은 좋은 것으로써 이미 지나 갔다는 것이다.

譯 : 박창희
(기술정보실 선임행정원)

2. 경 쟁

첫번째 C인 경쟁을 보자!

오늘날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나라의 기업들이 공작기계에서 자동차까지 그리고, 가전제품에서 철강산업까지 미국산업을 잠식하면서 위협해 오고있다. 산업로봇, 광섬유, 유전공학,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등등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았던 산업에까지 점차 잠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5백만 미국인들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그들의 직장을 떠났다. 이런 현상은 어떠한 감소의 징후도 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미국 회사들이 보호무역주의에 자만해 있는 동안 외국인들은 점점더 많은 미국내의 일 자리를 점유해 오고 있다.

3. 복잡성

두번째 C인 복잡성은 어떠한가!

자동차 산업이 좋은 예이다. 옛날이 좋았던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자와 고객간에 단순한 거래였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자동차 모양이 매우 복잡하다. 요즈음은 연비, 가격, 원자재, 변화하는 설계기준, 노동력 문제, 고객의 다양한 욕구,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등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잡성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세번째 C인 변화에 더해진다.

4. 변 화

변화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의미할것인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희망과 창의성을 찾을 것이다. Alfred Sloan은 "General Motors와 나의 인생"이란 책의 마지막 장에서 "결코 변화하지 않은 회사는 하나도 없으며, 변화는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든다"고 말하였다.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났었고, 그중에 몇몇은 분명히 더 나쁘게 변화시켰지만 나머지는 더 좋게 변화시켰다. 이것을 원근법으로 투시해

본다면 현재 세계에서 형성된 몇가지 사건과 변화를 돌이켜 회상해 보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분명치는 않지만 변화에 대한 엄숙함을 느끼게 될것이다.

현재 기업들중에 가장 거대한 것 같은 GM이 20C초 1900년대에는 어린애 였다. 그때는 비행기도, 상업용 라디오도 TV도 컴퓨터도 전자 장치도 냉장고도 포장된 도로도 없었으며, 전화의 대중화도 되지않은 시대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몇가지만 이름이 붙어 있는 시대였다. 20C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에 고찰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하고자 한다.

자동차 나이는 Henry Ford와 그의 자동차 모델 T에 의해 예측되어진다. 그 신생기업은 유럽이 제1차 세계대전 와전중에 있을때 설립되어졌다. 이것은 미국 고립의 종지부를 알리는 것이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현실이 항상 이상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떠났다. 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고 있을동안 거대한 이주의 물결이 미국의 해안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은 신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미국은 온통 여러인종이 혼합된 나라가 되었다.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생활환경도 매우 거칠었지만 그들은 머물러 일하면서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공포의 목요일"로 지칭되는 주식 시장의 붕괴가 있었으며, 희망의 시기는 끝이났다. 빵 배급을 받는 영세민의 줄 "Bread line"이란 용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했다. 1930년대는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건과 절망의 시기였다. 전세계와 생활의 방식이 진주만에서 미국의 Arijona호가 화염에 싸임과 동시에 엉망이 되어었다. 민주주의의 힘은 궁극적인 회생을 또한번 강요하였다.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미국 땅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여자들은 집을 나와

공장에서 일하였으며, 그들은 결코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극적으로 끝이 났으며, 원폭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도시를 뒤로하고 교외로 이주하자 생활양식이 바뀌고 수송수단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이러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필수품이요 문명의 이기가 되었다.

Julio Iglesias와 Willie Nelson의 "To all the girls"라는 노래의 후렴을 보면, "나는 언제나 그대로이고 싶지만 변화의 바람은 항상 불어, 내가 낡을 잃어 버릴때까지 변화의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만 부는구나" 정말로 변화의 바람은 점점 세차고 커지기만 한다.

과연 1963년 11월 22일에 당신은 어디에서 무얼했는지 생각해보라? 단지 미국인 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세상에서 모든 세대들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F. Kennedy의 암살은 Arthur왕의 고향인 Camelot과 같은 천국으로의 꿈과 정치적 발전에 대한 꿈을 일시에 깨어버렸고, Selma에서 부터 Montgomery에 이르기 까지 25,000명의 미국인들은 Martin Luther King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행렬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고 외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등권을 실현하자고 투쟁을 선동하고 있었다. 우리들 대부분의 뇌리에 생생한 또다른 영상은 Kent State 캠퍼스에서 오와이오주립 경찰에 의해 저격된 젊은 시신옆에 웅크리고 앉은 여대생 모습이다. 이러한 저격은 외국의 전쟁으로 인해 한 국가가 분열되어지는 징후와 같았다. 이러한 분열이 워트게이트 사건과 리처드 닉슨의 사임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1969년 7월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디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틸을 느끼는 희망찬 순간이었다. 그가 지구에 돌아 왔을때, 우리는 에너지 위기가 모든이에게 또다른 현실로 부딪쳐와 가솔린을 살려는 긴 행렬과 직면해야만 했다.

Go-go의 시기로 말하는 1980년대는 우주왕복선이 하나의 우상으로 여겨졌으며, 로널드 레이건과 낸시가 백안관의 주인이 되어 80년대 대부

분을 미국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 인디라 간디, 아야톨라와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등이 국제세계에서 사라진 반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국제정치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Lech Walesa와 그의 자유노조는 폴란드에서 불씨를당겨 동유럽의 전체에 자유의 등불을 밝혔다.

또한 1980년대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10년간 이었다. 물론 축하할 일들도 많다. 이란의 인질들이 석방되었고,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재개하였다. Perestroika와 Glasnost란 말은 베를린 장벽을 마침내 허물게하고 자유의 상징어처럼 전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체르노빌, Bhopal, Tienanamen Square, Hugo, 쉘런저, Flight 007같은 단어들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포그랜드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등은 80년대의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We are the World"란 노래는 우리들의 희망을 샘솟게 하는 힘을 주었다. 아트렌틱에서 타이타닉호가 발견되고, 월스트리트가 붕괴되고, 그리고 AT & T가 해체 되기도 하였다.

기술의 성공은 우리에게 인공심장과 스텔기 폭격기, 상온핵융합, 초전도체, 유전공학, 스타워즈계획, 보이저호, 컴퓨터제어기술, 축소화, 레이저의 안과수술, 비행접시, 산업로봇과 통신수단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컴퓨터 바이러스, 닌자거북 장난감과 같은 많은 반갑잖은 이물질도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경제적 동물도 인식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을 경계하고 있다. Lester C. Thurow는 "미국의 문제는 경제성장의 황금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경제부흥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신화와 같은 옛날을 돌이켜 보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영광이 끝났다는 것을 알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집적회로와 전자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

하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은 필수요 기본이 되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유전공학은 우리 생명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유전공학 분야는 거의 매일 Breakthrough가 일어나는 기술분야이다.

4.1. 시장동향 변화

- 산업의 불투명, 사업경쟁 영역 그리고 경쟁자들의 새로운 전체 카테고리의 출현(이것의 한 예는 투자정보 서어비스업이 금융업의 발전에서 분화된 것이다.) 기업은 경쟁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좀더 확실히 분석해야만 하고, 특히 제품 이미지의 선명성과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
- 회사, 제품, 서어비스, 시장, 작업기술 등 모든 것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직구조, 정책, 제조과정 심지어는 인력까지 적합성과 다양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한다. 기업이 영구히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도 필요하다.
- 광대한 시장의 소멸 그리고 분명히 뛰어난 상인의 출현등을 연구분석하는 마켓팅 전략을 배워야만 한다.
- 모든 제품은 구호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이상 팔려고 하지 않아도 고객들의 욕구와 기호에 맞으면 고객들은 구매할 것이다.
- 현재 일하는 여성은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재구성에도 한몫을하고 있다. 작업환경과 제품설계에 관한 뛰어난 능력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은 일하는 어머니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가장 재능있고 헌신적인 여성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경영 정책에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인구통계 변화는 전체시장 요인에서 불가분의 변수로 작용한다. 줄어드는 10대는 감소하는 범죄와 실업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중간 나이가 1986년에는 31세에서

2000년에는 36세로 높아질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 늙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최근 사람들은 모든것의 구조, 정책, 제조과정, 절차등에 대해 단순한 것을 선호하고 있다.

4.2. 경영의 기본자세

첫째, 불확실한 것은 확실하다. 잘알려지지 않았던 경쟁자들은 모든 산업에서 분명히 표면화 될 것이다. 화폐 교환율, 이자,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상승율, 개조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등위 실체는 분명해질 것이며, 또 일시에 모호한것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에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킬 것이다.

둘째, 가속화되는 기업의 변화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주변은 영원히 불안하다.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객과 끊임없는 접촉만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셋째, 기술이 해결의 만능은 아니다. 기술 그 자체만으론 품질과 충분한 이익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그일을 해야만 한다. 때로는 가장 값어치 있고 효과적인 혁신이 하층이나 일선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부터 나오기도 한다.

네째, 컴퓨터가 대리인 역할을 한다. 기업의 생명체와도 같은 정보는 경쟁의 기본 무기와도 같다.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사용에 능숙해야만 한다.

다섯째, 고객은 왕이다. 오늘날의 과잉생산 능력은 실수요자를 찾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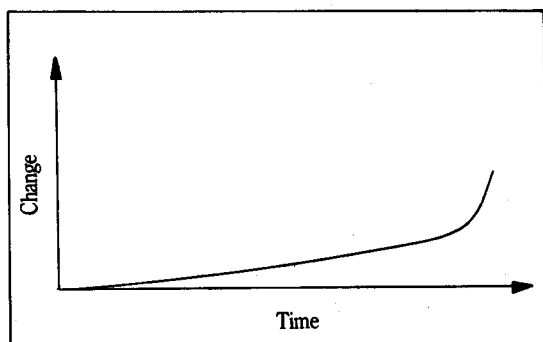
여섯째, 배움은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힘이다. 지속되는 경쟁이득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얻을수 있는 진정한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기업 생존자는 외부 압력요인을 정확히 예지하고 기업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인을 계속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일곱째, 사람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기업의 미래를 펼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살수도 팔수도 없는 "인간의 정열"인 것이다. 각

개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헌신이 인류 미래의 발전과 생존에 결정적이다.

5. 시간과 변화

확실한 한가지는 2001년에는 오늘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위해 변화 그 자체의 원인과 결과를 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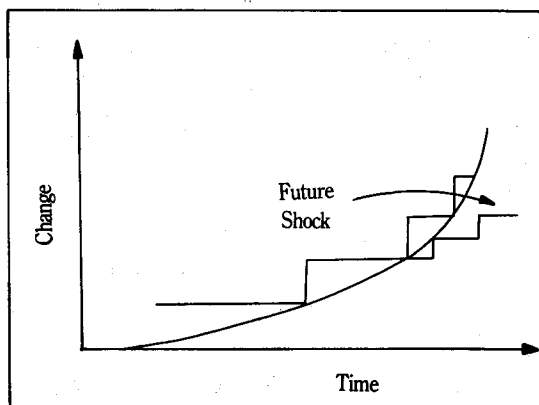


새로운 회사를 창립한 한 기업가를 가정해보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동시에 시장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에 지친 나머지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을 줄일수 있는 회사경영방법과 구조로 변화 시킨다면, 결국 고립되어 회사도 산위기에 직면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러한 위기를 좀더 자세히 해부해 보면, 통상 위기의 표시로 기업성장의 침체를 가져온다. 그때, 판매 정책과 회사의 간부들은 공격을 받게 될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관습에 대하여 공격을 퍼부울 것이다. 만약 기성세대들이 승리한다면 예전의 가치관과 전통이 성행하여 그 회사는 경쟁을 점점 줄임으로써 쇠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매년 몇개의 회사들이 "Fortune誌"의 500대 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성세대가 진다면, 그 회사는 다시 조직되어 재생할 것이다.

6. Future Shock

변화곡선으로 되돌아 가서, 여러분은 다시 활

기를 찾은 회사가 잠시동안 경쟁의 이익을 누리다가 다시 또 제조직과 재수정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또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이클은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해 보자!



첫째, 변화는 크기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재조직은 점점더 많은 인력을 해고하여 결국에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상을 해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반복된 변화는 점점더 짧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주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변화를 수용할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 너무 약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결과 회사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나 경쟁력을 회복할 만큼 충분히 빠른 변화 수준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결국 변화에 압도당하고 만다. 이러한 결과를 Future Shock라 한다.

그 효과는 우리에게 대단히 잘 알려져 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새로운 문명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일어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저 문명을 누리고자만 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내일의 리듬속에 그들의 생활을 이미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절망적이고 무익한 과거의 환상에 사로 잡혀 사후의 세계에서 부활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적는다. 이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는 좋은 예이다. 대체로 우리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생각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속에서 그러한 경

향을 배척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7.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이미 예측된것과는 달리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예를들면, 우주선, 전화기, 로봇, 변이, 인공심장, 불후의명성, 자기부상 그리고 텔레포테이션 등은 이미 실용화 되기 이전에 예견되어졌었다. 정말로 이러한 개념중에 몇가지는 아직도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 없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 어찌다가 다른 사물을 발견하기도 하다가 때론 굉장한 발견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모든 발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세상으로 변화시킨다. X-ray, 원자력, 라디오, TV, 전자제품, 사진기, 녹음기, 레이저 등은 발견에 앞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예이다.

그러면, 이런 "Future Shock"를 어떻게 해소할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자하는 끝없는 도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과 인간이란 두가지 변위 요소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이 두 요소를 변화시킬수도 있고 또 변화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조직 구성은 변화가 일어날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조직에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변화의 또다른 주요요인은 당신의 직원들이 당신의 기업을 점점더 높은 수준의 변화로 이끌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직원들이 성장함으로써 만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이 Future Shock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자질있는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대우해 주는 것이 내일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전략적인 비결일 것이다.

변화의 바람을 막기위한 정공법으로써 당신은 인력개발과 조직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구조를 만들어야만 하고, 또 경영스타일, 사기진작, 반대급부등과 인력개발 및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틀림없이 성공할수 있는 기업 요인들을 찾아 낼 것이다. 우리는 현재하고 있는 작업 방법과 과정이 미래에서도 활용될수

있을만큼 잘 심사숙고 되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묻지말고 왜 어떤것은 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것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만약 내가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일은 부서질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케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전략적 경영방식일 것이다. 변화에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며 행동적으로 대처하는 길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8. 기술과 인간

우리가 기술력의 선두주자로 있는 동안에도 기술 그자체는 계속된 성공을 보장할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정세에서 기술의 획기적인 돌파도 지속적인 경쟁적 이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기술 그자체는 쉽게 추방되고 새로운 기술이 곧 이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차이는 인력이다. 어떻게 경영하고 또 어떻게 조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인간만이 미래를 계획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Vision에 대하여 실제로 무엇을 추진할수 있는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가동되는 인간의 기업이다.

만약 당신이 인간을 물건이나 로봇으로 취급하면서 변화에 대해 도전하라고 지시한다면, 그들은 빈껍데기뿐인 과시행렬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Will Durant의 "역사의 교훈"이란 책속에 미래에 대한 인간의 잠재능력에 대하여 잘 묘사해 놓고 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들일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할때, 그대답은 즐거운 마음과 의지력을 가진 술선수범하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계속해 말하기를 "한기업이나 한문명이 쇠퇴하게 된때에는 생명의 수명이 다함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도전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별로 쓸만한게 없는 것이 계획 수립이다. 누군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수립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Vince Lombardi의 말을 빌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힘의 부족이나 지식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의 부족에 있다.” 변화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시작된다. 변화는 우리의 현실로써 항상 그러했다. 나무는 단지 종자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변화의 산물이라는 자연의 법칙이다. 변화는 매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로써 삶긴 개구리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개구리를 찬물이 담긴 후라이팬에 넣는다면 그개구리는 매우 행복하게 헤엄치며 놀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급격히 물의 온도를 높인다면, 개구리는 밖으로 튀어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의 온도를 매우 천천히 높인다면, 개구리는 삶겨 죽을때까지 불안하게 이리저리 헤엄치고 다닐것입니다. 그개구리는 결코 밖으로 튀어 나올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를 놓칠때까지 주위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삶긴 개구리와 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속화되는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시겠습니까?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똑같은 역사의 재현을 겪게 될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할것이다. 그러면 그 현실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래를 의미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탁자로서 혹은 지나간 세대 유산을 물려줄 위임자로서 각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감지·적용하며 우리문화와 사고방식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 일 것이다.

과연 터널끝에 희망의 등불은 있는가!
우리가 기성세대에 의해 고착화된 사고 방식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희망의 등불은 보일 것이다. “에틀렌틱 저널 誌”의 사설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많은 범죄, 폭력, 흥분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경기에서 지고, 또 아무리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여도 여전히 비틀거리게 된다. 과학은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아를 찾을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며 비틀거리게 된다. 또한 정치세계에서 누가 영입되고 누가 사임했는지를 알려고 노력하여도 너무도 급변하기에 여러분은 어리둥절하게 된다.”

GM社의 전략기획이사인 Michael E. Naylor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인용문을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때 다가가서 벽에 걸려 있는 석수쟁이의 모습을 본다. 백번을 내려쳐도 조그마한 균열조차 보이지 않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바위를 내려치는 석수쟁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일백한 번째는 그 바위가 두쪽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나는 그 바위가 쪼개졌을대 찢던 일백한번째의 햄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내리쳤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악착같이 꾸준히 일해야만 한다. 그리고 Henry For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일상적인 활동에도 한계를 느끼게 된다. 실패는 냉철하게 다시 시작할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최선을 다한 실패에는 수치가 있을수 없으며, 실패를 두려워 하는데에 수치가 있다. 모든일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한가지 선택밖에 없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것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미래를 직시하면서, 사건을 분석연구하여야 하며, 미래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때, 비로소 이세상에는 아직도 약간의 매력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것이다.